



한라·아세아시멘트,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봉사 참여
한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임직원들이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현장 봉사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 임직원 및 가족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는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한국해비타트 천안현장에서 진행했다. /한라시멘트



제품안전학회, 제품안전경영대상 시상식
한국제품안전학회가 제품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열고, 다성테크 등 5개 기업에 대상을 수여했다. 제품안전학회는 지난 12일 오후 1시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법학관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후원으로 '제품안전혁신과 사회적가치 창출' 주제로 2019 한국제품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제품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제품안전학회 노경호 회장과 문형남 부회장(오른쪽 여섯번째, 다섯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품안전학회



소상공인연합, 2018 미스코리아 7명에 'K.tag 특별상'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지난해 미스코리아 7인에게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K.tag 특별상'은 작년부터 K.tag 홍보대사로 활발하게 활동해 온 2018 미스코리아 7명에게 주어졌다. 최승재 회장(오른쪽)이 2018년 미스코리아 진 김수민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에이스침대, 모델 박보검 팬 사인회 열어
에이스침대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에이스침대 매장에서 브랜드 모델 박보검과 함께하는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박보검이 손을 흔들고 있다. /에이스침대



삼육대, 대한건기연맹과 10월 건강 걷기대회 공동 개최
삼육대와 대한건기연맹은 지난 1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총장실에서 '3650 건강 걷기대회' (가제)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10월 13일 삼육대 캠퍼스와 주변 노원구,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서 건강 걷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삼육대 오덕신 부총장(왼쪽)과 대한건기연맹 이강욱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학교

기꺼이 포기할 것들



홍경안
의
시시일각

미술현장을 외면했다며 2013년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 몰려가 시위까지 벌였던 이들은 오늘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달에 8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 미술현장을 대변하는 게 서울대 출신 작가들로 채워진 전시에 항의하는 일보다 가벼운 것일까.

대작 논란으로 사회를 시끄럽게 한 조영남 사건에는 성명서 발표와 고소까지 진행했던 미술단체들은 정작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견작가들의 현실에 대해선 말이 없다. 누군가의 작업실엔 팔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고, 누군가의 작업실엔 딱딱한 삶을 사느라 그림 시간이 없어 그림이 없는 양극화현상을 우려하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작가들이 유통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바리다매로 작품을 팔게 하는 기이한 양태를 조장해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정책을 수년째 접하면서 한국 미술계 식자라는 자들은 별 다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이 깔아 놓은 무대에 올라 원고료 몇 푼에 이름을 빌려주고 무색무취한 글을 통해 적당히

동조한다.

하긴, 문제가 있어도 유구무언하거나, 유사한 사안이라도 그때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는 미술계 인사들의 모습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 일례로 '내 사람 심기'라는 구태의연한 정치권력의 독선에 대항한 사례로 남은 2013년 '부산비엔날레' 파행 사태 당시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한 소장파 기획자 및 평론가들은 민주적 절차의 옹립과 원칙 추구를 외치며 감독 선임절차 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적 양태에 보이콧(Boycott)까지 불사했다.

현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도 그 중 한사람이었다. 한국큐레이터협회장이었던 그는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사태"라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 입장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약 6년의 시간이 흘러 그 또한 불합리한 문화행정과 '코드 인사' 의혹의 주인공이 되었고,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일부 작가들을 제외하곤 누구도, 어떤 단체도 반발하지 않았다. 2013년 당시 윤 관장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의 민주성을 외치던 이들조차 침묵의 터널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자신과 관계된 문제라면 기꺼이 누군가에게 맞서지만 누군가를 위해 맞서는 모습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게 작금의 미술계이다. 보신주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몸에 밴 무능과 권태로운 욕망 외엔 물려줄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이들이 소위 동시대 한국 미술계를 이끈다는 사람들이다.

매번 이런 글을 써봐야 달라질 것 하나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보면 문득 문득 되묻게 된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집요하며, 시니컬한 이미지로 기억될 것을 모르진 않음에도 그 욕망의 분동에 비례해 책임감과 책무 또한 준수해 왔는지 궁금해진다.

예술가들이 버틸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자생력 확보에 힘을 보탬 책임, 사회 속 예술의 위치를 견고히 다져야 할 책무, 흔들림 없는 신념과 소신으로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며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비전에 공들일 책임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긍정적으로 읽히진 않는다. 그들의 궤적과 모든 태도의 중심에는 이해관계와 이익을 배제하지 않은 사적 혹은 공적 욕망이 들어 있었고, 그토록 되뇌던 정의의 의미를 포함한 부당함에 대한 분노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혜택 앞에선 무용지물인 것이었다.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것들이었다. /미술평론가

프랜차이즈協, 국내기업 印尼 진출 돕는다

인니프랜차이즈協과 업무협약 양국 법규·정보 교류 등 협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협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협회(AF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FI는 약 80개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로 협회와 함께 WFC(세계프랜차이즈협회) 및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회원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 메인스테이지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 이사(社) 에스엘에프앤비 이종근 부사장이 협회를 대표하여 참석,



지난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아남 수칸다르 인도네시아프랜차이즈협회장(왼쪽)과 이종근 에스엘에프앤비 부사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사)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아남 수칸다르 인도네시아협회장과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회는 향후 인도네시아협회와 ▲양

국가행사 관련 법규 및 정책 정보 교류 ▲양국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교류 ▲글로벌 스탠더드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도모 ▲박람회, 바이어 매칭, 창업설명회 등 양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상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구만 약 2억6000명에 절반이 30대 미만인 인도네시아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확대 기조 속에 외국계 성장률(14%)이 전체 평균(8%)을 웃도는 등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교촌치킨, 피자마루, 푸레쥬르, 신마포갈매기 등 국내 외식 브랜드들이 잇따라 진출, 약 22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강덕영 유나이티드제약 회장 한국외대 발전기금 1억 기탁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장이 지난 10일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과 스마트도서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65학번인 강 회장은 제26대, 27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기부로 강 회장의 총 기부액이 2억 원을 넘었다.

/한용수 기자 hys@

인사

◆**통일부** ◇ 과장 전보 △ 운영지원과장 백상열

부음

▲ 김준호(서울대 식물생태학 명예교수·대한민국의학원 회장)씨 별세, 박시현씨 남편상, 김정원·김광원(수원과학대 자동차학과 초빙교수)·김주원(비엠에스 부사장)씨 부친상, 장윤화(예비역 공군 소장)·김근배(송실대 경영학과 교수)·이호영(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장인상, 이정은씨 시부상 = 14일 오전 9시17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02-3410-6917. ▲ 조양진(동아투위 총무)씨 별세, 고진하씨 남편상, 조선영·조소연씨 부친상 = 14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3층 2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02-3430-0226. ▲ 이재천씨 별세, 이성구(사업)·이용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씨 부친상, 배상하(CBS 마케팅위원)씨 장인상 = 14일 오전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16일 오전 부산추모공원, 010-2548-4771. ▲ 윤준광(제주도의회 의원)씨 별세 = 13일 오후 6시 57분, 제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영결식 17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앞마당, 장지 서귀포 추모공원.